

경전을 통해서 본 성과 성교육에 대한 불교의 관점

한 성 자
동국대학교

〈요 약〉

이 글에서는 불교경전에 나타난 성에 관한 가르침을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성 문제와 관련하여 고찰해 보았다. 불교에서 성에 대한 욕망 내지 감각적 욕망은 극복하거나 또는 절제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이유는 지나친 욕망의 추구는 결국 고통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불교의 성교육에 있어서 기본이 돼야 할 것으로서 이를 통해 성에 대한 자발적인 절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대승불교에 있어서는 보살행의 실천을 중심으로 성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어서 반야경에서는 오욕락을 누려도 해탈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으면 계를 어기지 않는 것으로 보는 반면에 몇몇 다른 경전에서는 사음에 뒤따르는 무서운 과보에 대한 묘사를 통해 부적절한 성에 대한 욕망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불교의 성에 대한 가르침이 감각적인 즐거움과 그에 따른 행복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것은 행복 자체를 나쁘게 보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지속가능한 행복이 아니기 때문이며 감각적 즐거움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극복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재가자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 욕망은 절제되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성 교육의 출발점은 성에 대한 욕망의 실체를 알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핵심주제어: 욕망, 성, 고통, 오계, 사음, 낙태

I. 시작하는 말

성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많은 탐욕 가운데 식욕과 함께 가장 뿌리 깊은 욕망으로 꼽힌다. 붓다는 일찍이 남자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여자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은 없고 여자에게 남자보다 더 관심을 끄는 것은 없다고 하였다.¹⁾ 감각기관의 자연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남녀 간의 이러한 관심과 성향 자체는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배고픈 것에 대해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선(善)과 불선(不善)의 잣대는 감각기관의 감응 이후의 인식과정과 그에 이어지는 행동에 대해서 적용된다. 불교에서 성에 대한 욕망은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제거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출가자의 경우에는 성적인 욕망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불선업(不善業)을 짓는 것이며 성욕이 남아있는 한 해탈하지 못하고 재가자의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절제가 요구되며 궁극적으로는 출가자와 마찬가지로 금욕하는 것이 권장된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왜 좋지 않은 행위가 되는가? 그것은 그러한 행위의 결과가 종래에는 괴로움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성적인 욕망을 비롯한 인간의 탐욕은 한 번 충족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시 새롭게 일어나 끊임없이 새롭게 채워질 것을 요구한다. 탐욕의 만족을 추구하는 자에게 만족이란 결코 가능하지 않으며 오직 집착의 괴로움만이 있을 뿐이다. 그에 대한 해결책은 그러한 탐욕을 근절시키거나 또는 최소한 절제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집착에 따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이와 같이 형상(色)의 달콤함을 달콤함으로, 재난을 재난으로, 벗어남을 벗어남으로,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들 스스로 물질을 철저히 알게 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이 가르친 대로 수행해서 물질을 철저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어떤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이와 같이 형상의 달콤함을 달콤함으로, 재난을 재난으로, 벗어남을 벗어남으로, 있는 그대로 알면, 그들 스스로 물질을 철저히 알게 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이 가르친 대로 수행해서 물질을 철저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²⁾

위의 경전 구절에 따르면 성적인 욕망을 일으키는 대상에 있어서 그 형상(色)을 안다는

1) 대림스님 옮김, 『형상 등의 품』 (Rupādi-vagga) (A1:1:1~10), 『앙굿따라 니까야』 제1권 (서울, 초기불전연구원, 2006), 71쪽. 이하 본 논문에서 인용한 원전의 번역은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발간한 각목스님, 대림스님 번역의 〈빠알리 경장〉을 사용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고쳐서 인용했다.

2) 대림스님 옮김, 『괴로움의 무더기의 긴 경』 (Mahā-dukkhakkhandha Sutta) (M13), 『맛지마 니까야』 제1권 (서울: 초기불전연구원 2012), 438쪽.

것은 형상이 가져다주는 달콤함, 형상으로 인한 재난, 형상으로부터의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볼 때 비로소 가능하다. 아름다운 형상은 달콤하고 매력적이지만 때가 되면 달콤함이 사라져 재난 상황에 놓인다는 것을 알고 형상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사실까지를 볼 때 형상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형상의 매력만을 보고 그 결점은 보지 못한 가운데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그 사람은 형상을 제대로 아는 자가 아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형상을 안다는 것이 그 매력과 결점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형상으로부터의 벗어남까지 보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도 불교의 성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적 대상이 가지고 있는 매력과 함께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결점도 함께 봄으로써 성적 대상에 대한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성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불교경전에 나타난 성에 관한 가르침을 살펴보고 이를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성과 관련된 문제에 반영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남방불교와 북방불교 또는 출가자와 재가자의 구분에 따라 성격이 다른 몇 가지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현대사회가 당면한 성 문제들과 성 교육에 대해서 시사해 줄 수 있는 바를 찾아보고자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단히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사회적으로는 성적 욕망과 관련된 담론과 문화가 범람하고 있으나 종교계의 일반적인 상황과 마찬가지로 불교에 있어서도 성에 관한 연구는 별로 많지 않다. 2011년에 한 학술지와 대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하여 ‘불교는 성적 욕망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주제발표가 있었을 때³⁾ 불교신문 들뿐만이 아니라 일간지에서도 관심을 나타냈을 만큼 종교계에서 성에 관한 토론은 드문 상황이다. 사회적으로는 성적인 담론이 다른 모든 담론을 제치고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과는 크게 대조된다고 하겠다. 불교계가 오랜만에 성에 관해 목소리를 냈지만 발표자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인 것 이상을 넘어설 수 없었다. 성적 욕망이 출가자에게는 절대 금기시되고 재가자에게도 적극 권장되지 않는 이유는 성적 욕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궁극적 해탈을 장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류도(逆流道)로서 불교의 금욕정신은 욕망의 사회를 설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발표자 자신이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가르침이 과연 현대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지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은 다른 논문들에서도 마찬가지로서 직접적으로 성을 다룬 논문⁴⁾이 몇 안 되기 때문에 범주를 넓혀서 욕망과 관계된 논문들을⁵⁾ 함께 살펴보아도 대개가 욕망을 끊는 것

3) 『불교평론』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열린 논단에서 발표되어 학술지에 실렸다. 조준호, 「불교는 성적 욕망을 어떻게 말하는가」, 『불교평론』 제49호 (만해사상 실천선양회, 2005).

4) 철우, 「율장을 통해 보는 ‘욕망끊기’」, 『불교평론』 제24호 (만해사상 실천선양회, 2005);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성에 대한 문제 해결하기」, 블로그 『깨달음에도 공식이 있다』, <http://blog.daum.net/parkkug/25>.

5) 안옥선, 「불교덕윤리에서 부정적 성향의 제거」, 『불교학연구』 제26호 (불교학연구회, 2010); 안옥선,

이 어떻게 해탈과 밀접하게 연결되는가라는 교리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직접적으로 성에 관한 것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재가자들의 성교육과 관련해서 참조해볼 수 있는 것으로는 『재가불자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시론』⁶⁾이 있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재가불자에게 막연하게 ‘깨달음’을 그 실행목표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인간세계나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거나 또는 깨달음에 이르는 단계 가운데 어느 하나를 수행목표로 삼아 그것을 성취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그를 성적인 문제에 원용해 보면 깨달음이라는 요원한 목표에 따라 완전 금욕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원칙을 내세우기보다는 각자의 처지에 따라 그 수위를 조절하도록 함으로써 재가자들이 접근 가능한 불교적 성 윤리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국외의 연구들에 있어서는 남방불교의 대체적인 연구 경향은 직접적인 성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출가자들을 중심으로 계율과 관련해서 성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⁷⁾ 재가자들의 성에 관한 문제를 다룬 논문들 역시 직접적으로 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보다는 행복한 결혼생활과 관련하여 경전의 가르침과 연관해서 절제와 희생을 강조하고 있다.⁸⁾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이기적이지 않은 희생정신이 필요하고 상호간의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재가자들의 성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붓다의 가르침 안에서 보다 진보적인 가르침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uddhism: Rethinking Sexual Misconduct”는 대승경전에 나타난 계율에 근거해서 여성 및 성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⁹⁾ 그와는 대조적으로 “邪淫”은 성적 소수자들의 성적 지향에 대해서 대승경전이 그러한 행위들을 분명하게 사음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¹⁰⁾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계율을 느슨하게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

『붓다의 감각에 대한 성찰과 행복실현의 방법』, 『대동철학』 제6집 (대동철학회, 1999).

6) 김성철, 『재가불자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시론』, 『제42회 춘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 (한국불교학회, 2005).0

7) Bhikkhu Ariyesako (compiled and explained by), “The Bhikkhus’ Rules: A Guide for Laypeople”, Access to Insight, 1 December 2012, <http://www.accesstosight.org/lib/authors/ariyesako/layguide.html>.

8) Walshe, M. O’C., *Buddhism and Sex* Wheel Publication No. 225 (Buddhist Publication Society, 1986), Access to Insight, 1 December 2012, <http://www.accesstosight.org/lib/authors/walshe/wheel225.html> ; Lily de Silva, “One Foot in the World: Buddhist Approaches to Present-day Problems”, Access to Insight, 5 June 2010, <http://www.accesstosight.org/lib/authors/desilva/wheel337.html> ; K. Sri Dhammananda, “A Happy Married Life: A Buddhist Perspective”, Access to Insight, 5 June 2010, <http://www.accesstosight.org/lib/authors/dhammananda/marriage.html>.

9) Huai Bao, “Buddhism: Rethinking Sexual Misconduct”, *Journal of Community Positive Practices*, Issue 2, Catalactica NGO, 2012.

10) 『邪淫』, based on the Buddha’s teachings in the Mahayana Sutras & Treatises, 新《佛言》网站 www.xinfoyan.com.

II. 붓다의 성윤리

붓다 자신이 성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음행경』이 있다. 이 경에서 붓다는 자신이 음행의 족쇄를 제거했기 때문에 바른 깨달음을 실현했다고 선언함으로써 음행과 바른 깨달음 사이의 밀접한 관련을 나타냈다.¹¹⁾

“바라문이여, 나는 이러한 일곱 가지 음행의 족쇄 가운데 제거되지 않은 것은 내 자신에게서 하 나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에서 내 스스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하였다고 천명하였다.”¹²⁾

붓다가 모두 제거했다고 말한 일곱 가지 음행이란 (1) 여자로 하여금 향수를 바르게 하고, 주무르게 하고, 목욕하게 하고, 만지게 하는 것 (2) 여자와 함께 농담하고, 놀이하고, 유희를 하는 것 (3) 자기의 눈으로 여자의 눈을 깊이 응시하고 쳐다보는 것 (4) 여자들이 웃거나 얘기하거나 혹은 노래를 부르거나 혹은 울 때, 벽을 넘어 혹은 담장을 넘어 여자의 소리를 엿듣는 것 (5) 이전에 여자와 함께 웃고, 얘기하고, 놀이하던 것을 회상하는 것 (6)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에 빠지고 사로잡혀 탐닉하는 것을 보는 것 (7) 천상의 지위를 바라면서 청정범행을 지키는 것¹³⁾을 말한다.

이와 같은 행위들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통된 것은 “바르게 청정범행을 닦는다고 서원하고, 또 실제로도 여자와 함께 둘이서 성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성행위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곱 가지의 행위는 해탈에 장애가 되는데 왜냐하면 수행자가 “그것을 즐기고, 바라고, 만족을 느낀다”는 점에 있어서 그것은 “청정범행의 훼손이고, 뚫어짐이고, 오점이고, 얼룩”이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음행의 족쇄에 묶여 생노병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며 괴로움으로부터의 해탈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붓다 스스로가 여자와의 이러한 다양한 접촉을 즐기지 않는 것은 이러한 즐거움이 일시적인 것으로서 즐거움은 적고 괴로움은 많은 재난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금욕해야 하는 이유가 즐거움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즐거움을 얻기 위한 것이며 괴로움으로부터의 궁극적인 해탈을 통해 붓다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과 즐거움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깨닫고 난 붓다에게 마라의 딸들이 나타나서 붓다를 유혹했다는 사실이 다. 마왕 파순은 싯다르타가 출가한 그 순간부터 7년 동안 싯다르타를 쫓아다니며 접근

11) 『음행경』에 대해서는 다음의 설명을 참조할 것. “Methuna Sutta: The Discourse on Coupling” (A 7.47), *Living Word of the Buddha*, SD vol 21 no 9, <http://dharmafarer.googlepages.com> or <http://www.dharmafarer.net>.

12) 앞의 책, 대림스님 옮김, 『음행 경』 (Methuna-sutta) (A7:47), 『양긋따라 니까야』 제4권, 423-424쪽.

13) 위의 글, 421-423쪽.

할 기회를 엿보았지만 기회를 잡지 못했다.¹⁴⁾ 붓다가 드디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자 마왕 파순은 몹시 절망하였고 이를 본 딸들은 아버지를 위해 붓다를 유혹하러 가는데 그 과정이 『마라의 딸들 경』¹⁵⁾에 묘사돼 있다. 낙담한 마왕 파순으로부터 “아라한이며 세상의 선서인 붓다는 애욕으로 유혹해서 잡아들이지 못하니 그는 마라의 영역을 넘어섰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 몹시 슬프다”¹⁶⁾라는 말을 듣고 마왕의 세 딸들인 갈애(Taṇhā), 권태(Arati), 애욕(Rāga)은 붓다를 유혹하러 간다. 붓다가 그녀들의 말에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자 세 딸들은 서로 의논하여 남자들의 취향은 사람마다 다르니 갖가지 여자로 변해서 유혹하자고 의논하여 소녀, 처녀, 한번 아이 낳은 여자, 두 번 아이 낳은 여자, 중년 여성, 나이 든 여성의 순서로 매번 각자 100명씩의 모습으로 나타나 붓다를 유혹하나 모두 실패한다. 붓다는 돌아보지도 않고 다만 “여래의 법은 모든 애욕을 여의는 것”¹⁷⁾이라고 말할 뿐이다. 마왕 파순은 실패하고 돌아온 딸들을 보고 가슴에 썩기가 박힌 것처럼 실망해서 왔다고 비웃고는 붓다를 여자로 유혹하려고 하는 것은 이빨로 쇳덩이를 씹으려 한 것과 같다는 등의 여러 비유로써 그 불가능함을 말하고는 붓다 곁을 떠난다.

이 이야기는 붓다가 이미 깨달음을 이루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마라를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심리상태에 대한 상징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깨달음 후에도 마라가 접근할 수 있는 틈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그러나 붓다는 결국 마라를 물리쳤으므로 이 이야기에서 보다 의미심장한 것은 최후의 순간까지 사라지지 않는 음욕의 뿌리 깊음이라고 할 것이다.

Ⅲ. 빨리경전의 성윤리

1. 출가자의 성윤리

불교에서 출가자의 경우에는 철저한 금욕이 요구된다. 출가자에게는 일체의 음란한 행위가 허락되지 않아서 비구가 지켜야 할 250개¹⁸⁾의 계율 가운데 성교를 금지하는 것이

14) 각묵스님 옮김, 『7년 동안 경』(Sattavassāni-sutta) (S 4.24), 『상윳따 니까야』 제1권 (서울: 초기불전연구원, 2009), 446-447쪽.

15) 위의 책, 『마라의 딸들 경』(Māradhītu-sutta) (S 4:25), 450-457쪽; 『雜阿含經』, T02, pp. 286b-287c.

16) 위의 책, 451쪽.

17) “如來法離諸愛欲”, 『雜阿含經』, T02, p. 287a12.

18) 빨리율장에서 비구계는 227개, 비구니계는 311개이며 조계종의 소의율전(所依律典)인 사분율에서는 비구계는 250개, 비구니계는 348개이다. 율장에 대해서는 마성, 『상좌부 상가와 팔리율장』, 『계율수행 대법회』, 2005, <http://blog.daum.net/riplmaseong>과 같은 저자의 『율장은 금서인가』, 『불교평론』 제25호

그 첫 번째로 제정되었다. 이것은 가장 무거운 죄인 바라이법(波羅夷法, Parajika)¹⁹⁾에 속하며 이를 범하면 승단으로부터 추방되어 다시는 승단으로 돌아갈 수 없다. 또한 승단에서 추방되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는 죄 가운데서 가장 중한 죄인 승잔법(僧殘法)에도 역시 성에 관한 죄가 다수 포함돼 있고²⁰⁾ 세 번째의 죄목인 부정법(不定法)도 비구가 여성과 자리를 함께 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서 출가자에게 성과 관련된 문제는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다.

붓다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 성의 위험성에 대해 효과적으로 경계시키고 있다. “뱀의 비유 경”에는 붓다가 사용한 여러 비유들이 열거돼 있다. 이 경의 제목이 된 뱀 머리의 비유에 있어서는 어리석은 사람은 뱀을 잡을 때 뱀의 꼬리나 몸을 잡아서 뱀에게 물려 죽게 되지만 현명한 사람은 뱀의 머리를 잡음으로써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다.²¹⁾ 여기서 열거된 비유들은 『뽀탈리아 경』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돼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보면 먼저 빠다귀의 비유는 숙련된 백정이 잘 발라서 살점이라고는 한 점도 없고 피만 조금 묻은 빠다귀를 배고픈 개에게 던져줄 때 그 개는 빠다귀를 핥음으로써 배고픔과 지침을 달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지치고 낙담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²²⁾ 성에 대한 욕구는 결코 충족될 수 없음을 비유한 것이다. 고깃덩이의 비유는 독수리가 고깃덩이를 물고 날아갈 때 다른 독수리들이나 어떤 새들이 그 독수리를 뒤쫓아 가서 부리로 찢고 할퀴는 상황에 대한 것이다.²³⁾ 물고 가는 고기 살점을 놓지 않으면 그 독수리는 죽음에 이르거나 그에 버금가는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이 감각적 욕망에도 즐거움 보다는 괴로움과 고통과 재난이 더 많은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마른 풀로 만든 횃불을 들고 바람을 향해 나아갈 때 얼른 그 횃불을 놓아버리지 않는다면 불은 그의 손, 팔 또는 사지를 태워 고통을 불러올 것이다. 나머지 숫불구덩이, 꿈, 빌린 물건, 과일나무의 비유들에 있어서도 같은 맥락에서 숫불구덩이에 넣으려고 할 때 발버둥 치는 것, 빌린 물건 가지고 허세부리는 것, 과일나무 위에 올라가 과일을 따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과일을 얻으려고 도끼로 나무를 찍으려 하는 것 등을 이야기함으로써 모두 잠깐의 달콤함이 결국은 재난으로 귀결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다.²⁴⁾

(만해사상 실천선양회, 2005)를 참조할 것.

19) 바라이법은 음행, 도둑질, 살인, 거짓말의 네 가지를 범하는 것이다. Thanissaro Bhikkhu, “Buddhist Monastic Code I: Chapter 4”, Access to Insight, 1 December 2012, <http://www.accesstosight.org/lib/authors/thanissaro/bmc1/bmc1.ch04.html>.

20) 승잔죄 13개 가운데 4개가 해당되며 자위행위, 성욕으로 인해 여자의 신체와 머리카락, 혹은 옷이나 장신구를 어루만지는 것, 여자에게 추악한 말을 하는 것, 여자에게 몸을 바치는 것이 첫째가는 공양이라고 부추기는 것을 말한다.

21) 앞의 책, 대림스님 옮김, 『뱀의 비유 경』(Alagaddupama Sutta) (M22), 『맛지마 니까야』 제1권, 543-544쪽.

22) 위의 책, 대림스님 옮김, 『뽀탈리아 경』(Potaliya Sutta) (M54), 『맛지마 니까야』 제2권, 467쪽.

23) 위의 글, 468쪽.

24) 위의 글, 468-471쪽.

이상의 여러 비유들로써 붓다가 성에 대해 특별히 경계하도록 한 것은 많은 탐욕 가운데 성에 대한 욕구가 가장 치성하기 때문이며 그러한 사실은 최초의 한역경전인 『42장경』에 잘 나타나 있다. “애욕에 색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색욕은 크기가 끝이 없다. 다행히 하나뿐이기 망정이지 만일 그것이 두 개였다면 만천하 백성 중에 도를 닦는 이가 없었을 것”²⁵⁾이라고 하였다. 성에 대한 욕망은 이렇게 큰 장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율장의 227개, 대승 사분율의 250개의 비구계 가운데서 불사음계가 첫 번째로 제정된 것인데 이것이 성립하게 된 인연은 다음과 같다.

수딘나(Sudinna)라는 부잣집 상인 가문 출신의 비구가 어느 날 탁발하러 출가 전 자신의 집에 갔다가 어머니로부터 출가로 인해서 집안 재산이 모두 친척에게 넘어가게 생겼으니 출가전의 부인과 동침하여 아들 하나만 낳아주고 가라는 말을 듣고 결국 그대로 해 줌으로써 첫 번째 중죄인 바라이죄가 제정 되었다.²⁶⁾ 붓다는 이 때 수딘나에게 여자의 몸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것보다 차라리 뜨거운 화로에 들어가거나 독사에게 물리는 것이 더 낫다고 크게 나무랐는데 그것은 인과(因果) 때문이다. 독사나 뜨거운 화로에 다치면 최악의 경우 죽거나 크게 다치는 것으로 끝나지만 여자와 관계를 맺게 되면 지옥에 태어나 오랜 동안 고통을 겪어야 하는 과보를 받게 된다. 이 일을 통해 성립된 첫 번째 계율은 모든 종류의 성교를, 그 대상과 방법의 종류를 막론하고, 금지한다는 것이다.²⁷⁾

불사음의 계율의 출발점은 감각적인 욕망은 완전히 채워지는 일이 없다는 것에 있다. 살아 있는 한 갈애는 계속된다. 죽어서도 갈애는 계속된다. 그 갈애 때문에 다시 윤회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감각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에 있다. 어느 날 사리뻘따가 “도반들이여, 열반은 행복입니다. 도반들이여, 열반은 행복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다른 비구가 아라한에게는 느껴지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이라고 하느냐고 묻자 사리뻘따는 “도반이여, 여기서 느껴지는 것이 없는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감각기관인 눈, 귀, 코, 혀, 몸의 욕망이 외부의 대상인 형상, 소리, 냄새, 맛, 촉감을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매혹적인 것”으로 느낌으로써 이로부터 일어난 행복과 기쁨을 욕망의 행복이라고 하면서 비구는 이런 행복을 넘어서서 명상에 든다고 하였다.²⁸⁾ 재가자의 행복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라면 출가자의 행복은 이러한 욕망을 떠난 데서 오는 이욕의 즐거움이며²⁹⁾ 더 나아가서 종래에는 이욕의 즐거움조차도 없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 열반의

25) 『四十二章經』, T17. p. 723 b01-b02. “愛欲莫甚於色, 色之爲欲, 其大無外, 賴有一矣. 假其二, 普天之民無能爲道者.”

26) Thanissaro Bhikkhu (translated and explained by), “The Buddhist Monastic Code I: The Patimokkha Training Rules”, Access to Insight, 23 April 2012, <http://www.accesstoinsight.org/lib/authors/thanissaro/bmc1/bmc1.intro.html>.

27) Thanissaro Bhikkhu (translated and explained by), “Buddhist Monastic Code I: Chapter 4”, Access to Insight, 1 December 2012, <http://www.accesstoinsight.org/lib/authors/thanissaro/bmc1/bmc1.ch04.html>.

28) 앞의 책, 대림스님 옮김, 『열반경』(Nibbāna-sutta), (A 9.34), 『앙굿따라 니까야』 제5권, 456-460쪽.

29) 앞의 책, 안옥선 (1999), 212쪽.

행복에 이르는 것이다.

성과 관련하여 비구니에게 있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 계율의 개수도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³⁰⁾ 바라이죄도 비구계에서는 4개인데 반해서 8개이다. 비구니가 정욕을 품은 남자에게 어깨 이하에서 무릎 이상 사이의 몸을 만지게 해서 쾌락을 얻는 것과 정욕을 품은 남자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손이나 옷을 만지게 하고, 환대하며 앉기를 청하고, 함께 길을 가는 것도 가장 무거운 죄인 바라이죄에 속한다.³¹⁾ 오늘날 남방불교에서 비구니의 존재는 사라졌지만 붓다 재세 시에 많은 비구니들이 깨달음을 얻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는 마왕으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받고 그를 물리친 경우들이 여럿 있다.

『상윳따 니까야』의 제5주제인 ‘비구니 상윳따’에는 알라위까, 고탓미, 위자야 등의 비구니들이 각각 마라로부터 유혹을 받으나 그것이 곧 마라인 것을 알아차리고 마라가 한 말을 붓다의 가르침으로써 논리정연하게 물리치는 장면들이 이어진다. 그 가운데 위자야의 경우를 들어보자. 마왕 파순은 한가한 곳으로 가서 명상에 들려하는 위자야 비구니에게 나타나 다음과 같이 유혹한다.

“그대는 젊었고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나도 또한 젊었고 청춘입니다.
여인이여, 오소서. 다섯 가지 악기와 더불어
둘이 함께 즐겁시다.³²⁾

그러자 위자야 비구니는 계송을 읊은 것이 인간인지 인간이 아닌지를 생각하고는 곧 마왕 파순이 자신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전율을 일으켜서 한가로운 명상을 버리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다음과 같은 계송으로 답한다.

마음을 끄는
형색, 소리, 냄새, 맛, 촉감-
마라여, 이것들을 그대에게 주겠다.
내게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썩어 문드러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기 마련인 이 몸이

30)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비구니계는 빨리 율장에서 311개, 사분율에서는 348개이다.

31) 『摩訶僧祇比丘尼戒本』, T22, pp. 556c21-557a01. 비구니의 바라이죄는 앞에서 말한 비구의 바라이죄 4개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2개 이외에 “다른 비구니가 중대한 죄를 저지른 것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은 죄, 죄에 따라 비구니를 정당하게 처벌하였음에도 시비를 세 번 이상 따지는 죄의 2개를 더해서 8개가 있다.

32) 앞의 책, 각목스님 옮김, 『위자야 경』(Vijayā-sutta) (S 5.4), 『상윳따 니까야』 제1권, 468쪽.

너무나 역겹고 혐오스러워
 애욕에 대한 갈애 뿌리뽑아버렸다.
 색계에 도달한 자들과
 무색계에 확고한 자들과
 평화로운 증득 얻은 자들은
 모든 곳에서 어둠을 부수었다.³³⁾

위자야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찬탄하며 접근하는 마왕 파순에 대해 위자야는 다섯 가지 즐거운 감각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곧 씹어 없어질 몸의 무상함과 그 혐오스러움을 들어 밝힌다. 색계, 무색계의 삼매를 증득한 성인들에게 애욕에 매달리는 어리석음은 더 이상 없는 것이다. 마왕은 “위자야 비구니는 내 정체를 알아차렸구나”하고는 낙담하며 사라져 버린다. 다른 비구니들의 계승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돼 마왕이 나타나 유혹하면 비구니들이 그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감각적 즐거움의 무상함을 밝혀 마왕을 굴복시키며 마왕은 결국 이 비구니는 내 정체를 알아차렸구나 하고는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이들 비구니들은 하나 같이 감각적 욕망에 따른 즐거움은 결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귀결이 될 뿐이라는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 부지런히 정진해서 모두 평화로운 증득을 성취해서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게 된 것이다.

2. 재가자의 성윤리

결혼생활을 하는 재가자들의 성 윤리는 완전한 금욕이 요구되는 출가자들의 계율과는 당연히 다르다. 기본적인 원칙은 지나친 쾌락에 탐닉하는 것도 아니고 지나친 금욕을 하는 것도 아닌 중도의 가르침이라고 하겠다. 이는 붓다가 6년 동안의 무익한 고행을 끝내기 직전에 깨달은 진리이다. 지나친 쾌락은 “저열하고, 천하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며” 또한 지나친 금욕은 “고통스럽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기”³⁴⁾ 때문에 그 둘을 다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적인 욕망을 비롯한 감각적인 욕망을 다스리는 데에 있어서 이와 같은 중도의 절제를 지키지 못한다. 더 나아가서 감각적 욕망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붓다는 깨닫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깊은 사유를 필요로 하는 자신의 가르침을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보통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

33) 위의 글, p. 469.

34) 앞의 책, 각목스님 옮김, 『초전법륜경』 (Dhammacakkappavattana-sutta) (S 56.11), 『상윳따 니까야』 제6권, p. 384.

“내가 증득한 이 법은 심오하여 알아차리기도 이해하기도 힘들며, 평화롭고 숭고하며, 단순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만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감각적 쾌락을 좋아하고 감각적 쾌락에 물들어 있고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고 있다. 감각적 쾌락을 좋아하고 감각적 쾌락에 물들어 있고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지, 즉 이것에 조건 짓는 성질인 연기를 본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³⁵⁾

범천이 이를 알고 붓다께 세상에 법을 알릴 것을 간청하고 또 붓다도 불안(佛眼)으로 세상을 두루 살핀 후에 세상에는 갖가지 근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그 가운데는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 불사(不死)의 문으로 들어올 자도 있다는 것을 보고 처음의 생각을 거두어 법을 펼쳤던 것이다.

붓다가 가르침을 펼 당시에 붓다는 위로는 가장 신분이 높은 왕부터 아래로는 돌팔매질 당하며 떠도는 미치광이 여자³⁶⁾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분과 출신의 사람들을 구별 없이 만나고 가르침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가자들에 대한 가르침도 상당히 많을 테지만 우리에게 전해진 불전은 출가자들에 의해서, 그것도 깨달음을 성취한 500명의 아라한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출가자 위주의 가르침으로 구성되었다.³⁷⁾ 그래서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재가자에 대한 빨리경전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싱갈라 경』이다. 이것은 바람직한 재가자의 삶을 한 집안의 가장이 맺고 있는 여러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부부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취할 다섯 가지 태도는 다음과 같다.

“존중하고,
알보지 않고,
바람피우지 않고,
권한을 넘겨주고,
장신구를 사준다.”³⁸⁾

이에 상응해서 아내는 다음의 다섯 가지 태도로써 남편을 대해야 한다.

말은 일을 잘 처리하고,
주위 사람들을 잘 챙기고,
바람피우지 않고,

35) 위의 책, 『권청경』(Āyācana-sutta) (S 6), 『상윳따 니까야』 제1권, 486-487쪽.

36) Andrew Olendzki (tr.), “Pañcasata Patacara: The Soothing of Grief” (Thig 6.1), Access to Insight, 8 August 2010, <http://www.accesstosight.org/tipitaka/kn/thig/thig.06.01.olen.html> .

37) 각목스님 옮김, 『교계 싱갈라 경』 (Sīṅgālovāda Sutta) (D31), 『디가 니까야』 제3권 (서울: 초기불전연구원, 2006), 311쪽.

38) 위의 글, 327-328쪽.

가산을 잘 보호하고,

모든 맑은 일에 숙련되고 게으르지 않는다.³⁹⁾

이러한 방식으로 남편은 서쪽 방향을 상징하는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다시 그러한 대접에 상응하여 남편을 사랑으로 돌봄으로써 서쪽 방향에 대한 예경이 잘 갖추어져서 안전하고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평등관계이다. 오늘날의 부부관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해도 그다지 무리가 없어 보일만큼 대등한 상호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당시의 가부장적인 인도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시대를 초월하는 현대성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성적인 욕망과 관계해서 불교의 가르침이 최종적으로는 성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남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붓다가 성생활을 동반하는 재가자의 삶이 가져오는 행복을 부인한 것은 아니다. 사리뿔따의 입을 통해 재가자의 삶이 주는 기쁨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도반이여,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섯입니까? 눈으로 인식되는 형상들이 있으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매혹적인 것들입니다. 귀로 인식되는 소리들이 있으니,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이 있으니, ... 혀로 인식되는 맛들이 있으니, ...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이 있으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매혹적인 것들입니다. 도반이여, 이것이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입니다. 도반이여, 이러한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반연하여 일어난 행복과 기쁨을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라 합니다.”⁴⁰⁾

이러한 감각적 욕망 가운데 성적인 욕망과 그로부터 오는 즐거움은 아마도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될 것이다. 재가자에게는 이러한 감각적 욕망의 행복을 느끼는 생활이 보장돼야겠지만 이때 샷된 음행을 저지르지는 말아야 한다. 성관계를 맺는 상대여성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샷된 음행이 된다.

그는 샷된 음행을 버리고 샷된 음행을 멀리 여윈다. 그는 어머니가 보호하고, 아버지가 보호하고, 오빠가 보호하고, 언니가 보호하며, 친지들이 보호하고, 남편이 있고, 몽둥이로 보호하고, [혼약의 정표로] 화환을 두른 그러한 여인들과 성행위를 하지 않는다.⁴¹⁾

이와 같은 샷된 행동을 하지 않고 모범적인 재가자의 삶을 산 것으로 알려진 부부 가운데는 나쿨라빠따와 나쿨라마따가 있다.⁴²⁾ 붓다가 그 부부의 집에 탁발하러 들렀을 때

39) 위의 글, 328쪽.

40) 앞의 책, 대림스님 옮김, 『열반경』(Nibbāna-sutta) (A 9.34), 『앙굿따라 니까야』 제5권, 456-457쪽.

41) 위의 책, 『지옥과 천상 경』(Nirayasagga-sutta) (A 10.200), 『앙굿따라 니까야』 제6권, 478쪽. 이 구절은 A.X.176을 비롯한 다른 경들에서도 보인다.

42) 위의 책, 『어울리는 삶 경1』(Samajivī-sutta) (A 4.55), 『앙굿따라 니까야』 제6권, 175-177쪽.

남편인 나꼴라빠따는 붓다에게 말씀드리길, 나꼴라마따가 자기에게 시집온 이후로 자기는 그녀에게 마음으로라도 거역한 일이 없는 만큼 몸으로 나쁜 행실을 한 일은 더더욱 없다고 하며 지금 여기에서 서로 함께 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나꼴라마따도 똑 같이 말하며 같은 소원을 말했다. 그러자 붓다는 그렇게 되려면 서로 마음을 맞추어 믿음, 계행, 보시, 지혜를 닦아야 한다고 설한다. 계송을 통해 붓다는 법다운 삶을 사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스런 말을 나누니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익과 편안함이 생겨날 것”이라고 칭찬하며 서로 마음을 맞추어 믿음, 계행, 보시, 지혜를 닦아나가면 내생에는 “신의 세상에서 감각적 욕망을 즐기면서 기쁨 누리리라”⁴³⁾고 축복해 주었다.

이를 통해 붓다가 재가자들의 행복한 결혼생활에서 오는 기쁨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부부가 함께 수행하여 큰 이익과 공덕을 쌓을 수 있다고 함으로써 감각적 욕구의 행복과 수행의 삶이 조화된 삶을 올바른 재가자의 삶으로써 적극 권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출가 수행자의 수는 적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가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예는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가르침이라고 하겠다.

IV. 대승경전의 성윤리

대승불교에서 출가자의 성에 대한 계율은 빨리 율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금욕을 요구하며 성에 대한 엄격한 규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출가자의 구족계로 사용하는 『사분율』은 소승 법장부에 속했던 것으로 파악된다는 점에서 두 승단이 유사한 출가자의 계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재가자의 계율로서 대승에서 지켜야 할 계율은 5계인데 그 가운데 세 번째가 불사음계로서 잘못된 음행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3악도, 즉 지옥, 아귀, 축생 중의 하나에 떨어지는 무거운 업보를 받으며⁴⁴⁾ 불교신자로서 이를 어기면 신자가 아닌 사람보다 그 죄과는 더 크다. 5계 외에 출가자와 재가자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계율로 보살계⁴⁵⁾가 있는데 보살계에는 10중과 48경계가 있다. 10중은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10가지 금계(禁戒)인데 앞의 다섯은 5계와 같다. 그러므로 음행에 관계된 것은 세 번째 불사음이며 경전의 곳곳에서 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성관계는 여섯 가지 조건, 즉 올바른 상대자, 올바른 시간, 올바른 장소, 올바른 방식, 올바른 절제, 올바른 도덕적 기준의 여섯을 갖추어야 한다. 이 각각에 대한 설명이 여러 경전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⁴⁶⁾ 반드시

43) 위의 글, 177쪽.

44) 『正法念處經』, T17, p. 3 c04.

45)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 第十卷下, T24, pp. 1003b-1010a.

6가지 조건을 다 갖추었을 때만 이를 어기지 않은 것이 되므로 가령 유일하게 올바른 상대자에 해당되는 배우자와 성관계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시간, 장소, 방식, 정도, 사회적 윤리규범에 맞지 않을 때는 죄를 짓는 것이 된다.

부적절한 관계는 위의 여섯 가지 상황이 아닌 경우, 즉 부적절한 상대자, 부적절한 방식, 부적절한 장소, 부적절한 시간, 부적절한 정도, 윤리적 규범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경우가 될 것이고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비밀스런 관계, 강요된 관계, 속임수에 의한 관계, 거래에 의한 관계, 금지된 상대자와 맺은 관계 등이 있는데 이때 금지된 상대자라는 것은 부모, 배우자, 친척이 보호하고 있거나 당사자 자신이 거부하는 경우, 또한 사회법에서 금지하거나 순결을 지키겠다고 서약한 종교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월경중의 성교, 자위, 성도착, 구강 및 항문성교, 동성애, 간음, 난교 및 일체의 혼전섹스가 모두 부적절한 성관계로 규정돼 있다.

혼전섹스가 사음인 이유는 대개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부모 및 다른 후견인에 의해서 보호되는 여성이거나, 비밀스런 관계거나, 강요되거나 거래에 의한 관계거나, 또는 욕망에 사로잡히거나, 임신 등의 결과에 대해 무책임한 관계거나, 또는 유혹해서, 노리개로 삼아서, 속여서,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이루어진 성관계 중의 하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⁴⁷⁾

위에서 살펴본 갖가지 경우의 부적절한 성관계에 대해서는 『대지도론』등의 여러 대승경전에서 말해지고 있지만 한편 같은 대승경전이라고 하더라도 반야경과 같은 곳에서는 훨씬 더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大般若波羅蜜多經』 「第十二淨戒波羅蜜多分」에서는 비록 보살이 5욕락(五欲樂)을 즐기더라도 파계라 부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약 보살이 재가 수행자가 되어 집에 거하면서 다섯 가지 욕락(欲樂)을 즐긴다면, 이를 보살의 파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왕자는 부왕(父王)의 분부를 받들어야 하고, 왕자의 배울 법을 배워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왕자는 코끼리·말·수레를 타는 것부터…온갖 기술과 사업을 다 배워야 합니다. 왕자가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익히고 배워서 왕으로서 자격을 갖춘 후에는 비록 다섯 가지 욕망의 갖가지 즐거움을 누리더라도 비난받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보살들이

46) 이 여섯 가지 조건과 이후에 나오는 이들 조건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책들을 종합한 것이다. 大正藏 Vol. 17, No. 721 《正法念處經》卷第一、六、七、十二; Vol. 24, No. 1488 優婆塞戒經《优婆塞戒經》卷第六 業品 第二十四; Vol. 24, No. 1476 『佛說优婆塞五戒相經』; Vol. 16, No. 694 『佛說大乘造像功德經』卷下; Vol. 25, No. 1509 《大智度論》卷第十三; Vol. 30, No. 1579 《瑜伽師地論》卷第八、五十九、六十; T17 No.727《十不善業道經》; T32 No.1646《成實論》卷第七、八; T2 No.148 《國王不梨先泥十夢經》.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웹 소스 「邪淫」, based on the Buddha's teachings in the Mahayana Sutras & Treatises, 新《佛言》网站 www.xinfoyan.com 을 참조할 것.

47) 「邪淫」, based on the Buddha's teachings in the Mahayana Sutras & Treatises, 新《佛言》网站 www.xinfoyan.com .

부단히 무상보리를 구하면 비록 집에 있으면서 다섯 가지 욕락과 갖가지 즐거움을 누리더라도 일체지의 지해를 훼손하거나 파괴하지 않습니다.”⁴⁸⁾

5욕락을 누려도 파계라고 하지 않는 것은 부단히 무상보리를 구하기 때문이다. 5욕락은 번뇌를 일으키고 이 번뇌 때문에 보살은 다음 생을 받게 되는데 다음에 언제 어디에서 몸을 받더라도 항상 보시·정계·안인(安忍, 인내)·정진·정려·반야 바라밀다와 그 밖의 한량없고 끝없는 불법을 꾸준히 배워서 원만하게 되면 언젠가는 일체지의 지해에 가까워질 것이다.⁴⁹⁾ 5욕락을 누림으로써 윤회의 세계로 돌아오지만 그 최종 목표가 일체지의 획득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반야바라밀다경』 십이분(十二分)의 윤리 이론은 욕망을 충족시켜도 파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욕망에 대한 적극적인 긍정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긍정에는 조건이 있다. 즉 항상 무상보리의 목표를 잃지 않고 6바라밀을 비롯한 불법을 닦을 때에만 욕망은 보살에게 이익이 되고 수행 방편이 되는 것이다.

V. 현대사회와 불교 윤리

1. 현대의 윤리적 문제점

이상에서 불교에서 성을 어떻게 보는가를 초기불전과 대승경전을 통해 살펴보았다. 성에 대한 출가자와 재가자의 윤리가 달라서 출가자에게는 완전한 금욕이 요구되고 재가자에게는 성생활은 당연히 인정되지만 올바른 성생활에 따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올바른 성생활을 해야 함을 보았다. 재가자가 지켜야 할 이러한 성의 태도는 오늘날의 상황에 미루어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힘들다. 무엇보다도 성관계의 상대자에 있어서 올바른 상대자는 배우자만 해당되므로 미혼의 남녀에게는 성관계가 완전히 금지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 성이 전면에서 내세워지고 있으며 성문화가 범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은 도처에서 젊은이들을 자극하고 있다. 또한 기혼인 경우에도 곳곳에서 외도가 만연하고 있는 것을 본

48) 『大般若波羅蜜多經』, T07 p. 1019 c12-c22. “若諸菩薩安住居家受妙五欲, 應知非為菩薩犯戒. 若諸菩薩行布施時, 迴向聲聞或獨覺地, 不求無上正等菩提, 應知是為菩薩犯戒. 譬如王子應受父王所有教令, 應學王子所應學法, 謂諸王子皆應善學諸工巧處及事業處, 所謂乘象、乘馬、乘車, 及善持御弓弩、排[矛*(替-日+貝)], 刀槩、鉤輪、奔走、跳躑、書印、算數、聲因論等, 及餘種種工巧事業. 若諸王子能勤習學如是等類順益王法, 雖受五欲種種嬉戲, 而不為王之所訶責. 如是菩薩勤求無上正等菩提, 雖處居家受妙五欲種種嬉戲, 而不違逆一切智智. 번역은 다음 논문을 사용했음: 아오밍차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대승의 윤리적 담론: 『대반야바라밀다경』(大般若波羅蜜多經) 십이분(十二分)으로 본 철학적 고찰』, 이상민 옮김, 『불교평론』 제32호 (만해사상 실천선양회, 2007), <http://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87>.

49) 『대반야바라밀다경』, T7 p. 1039 b28-c05.

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전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불교를 비롯한 종교가 너무 높은 기준을 세우다 보니 현실과 유리돼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현재의 성 문제에 대한 불교 성 윤리의 적용 가능성 내지는 불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불교의 성 교육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하자.

먼저 혼인관계에 의한 성관계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초기불전이나 대승경전 모두에서 혼전섹스와 혼외섹스 둘 다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부모를 비롯한 후견인의 보호 아래 놓인 여성은 섹스의 상대자가 될 수 없는데 개인의 독립성과 자주권이 강조되고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이것은 거의 실효성이 없는 계율이 되었다. 혼전 섹스에 있어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이에 대해 큰 거부감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혼전 섹스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성교 자체라기보다는 청소년들의 경우에 너무 일찍 성경험을 하기 때문에 성적인 매력과 두 사람 사이의 조화로운 만남을 구별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⁵⁰⁾ 또한 섹스는 지극히 개인적인 두 사람 간의 문제이지만 그에 뒤따르는 문제는 개인을 넘어서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대되며 그렇게 될 때 많은 경우에 개인의 성 경험에 대해서는 오늘날 매우 너그러운 잣대들이 그 결과 생기는 문제들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예를 들면 미혼모, 혼외 출생자, 이혼한 사람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과 편견을 들 수 있으며 대개 경험이 부족한 어린 세대들이 이런 처지에 놓이기 쉽기 때문에 고통은 그들만의 몫이 된다. 많은 젊은 여자들이 섹스의 자유에 따른 희생자가 되어 미래를 그릇치고 있다. 여성주의 시각에서는 낙태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린 여성의 생존권과 태아의 생존권이 대립돼 있는 것 같은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섹스문화의 범람으로 외도가 성행하고 거래에 의한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성 접대라는 말이 공공연히 쓰이고 있는 것처럼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성이 관여돼 있다. 궁정기녀 암바빨리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붓다 재세 시에도 창녀제도가 허용되고 있었으며 암바빨리의 공양과 망고나무 숲의 기증을 받아들임으로써 붓다가 그녀를 차별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⁵¹⁾ 그러나 이는 붓다가 성을 거래하는 것을 인정했다기보다는 당시의 왕권정치와 가부장적인 제도 아래서 사회적으로 행해지던 세속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불교의 평등사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섹스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성 문제와 결부되어 일어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낙태일 것이다. 낙태는 살인이다. 비구계와 보살계 모두에 있어서 살인은 가장 중한 죄에 속하며 세간법에서도 가장 큰 죄가 된다. 율장에서는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죽인 경우뿐만 아니라 교사해서 죽인 경우, 살아서 뱉하느냐는 말과 마음속에 일어난 그러한 의도로

50) K. Sri Dhammananda, "A Happy Married Life: A Buddhist Perspective", Access to Insight, 5 June 2010, <http://www.accesstoinight.org/lib/authors/dhammananda/marriage.html>.

51) 앞의 책, 각목스님 옮김, 『대열반경』 (Mahāparinibbāna Sutta) (D16), 『디가 니까야』 제2권, 197-201쪽.

써 죽음을 찬양하거나 죽음을 유도한 경우도 모두 불살생의 계를 범한 것에 해당된다.⁵²⁾ 그러므로 태아의 임신중절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사람들 모두가 이 계율을 어긴 것이 된다. 태아는 불교에서 생명으로 간주되는데 수태되는 과정에 대해서 빨리 경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가 만나서 수태가 이루어진다. 여기 어머니와 아버지가 교합하더라도 어머니가 월경이 없고, 간담바가 있지 않으면, 수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 어머니와 아버지가 교합하고 어머니가 월경이 있더라도 간담바가 있지 않으면 수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어머니와 아버지가 교합하고 어머니가 월경이 있고 간담바가 있어서, 이와 같이 세 가지가 만날 때 수태가 이루어진다.”⁵³⁾

그러므로 임신했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는 것을 말하고 특히 간담바라고 표현된 전생으로부터의 생명력이 태아로 들어온 순간 태아는 엄연한 생명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세 조건 중에 어떤 것이 결여되면 수태되지 않은 것이므로 불교의 관점에서는 피임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생명이 이루어지고 난 후의 낙태는 분명한 살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절은 굳이 통계를 찾을 필요도 없이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만큼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다.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⁵⁴⁾에는 참회하기 어려운 죄 다섯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 어머니, 태아를 죽이는 것과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것, 그리고 화합승을 깨뜨리는 것⁵⁵⁾의 다섯 가지이다. 낙태는 이렇게 참회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죄업이기 때문에 그 죄 값 또한 커서 본 경전에서는 “이 죄업으로 아비지옥에 떨어져 쉼 새 없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통 받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낙태에 대한 과보로 고통 받는 모습은 대승경전의 여러 곳에서 서술되고 있다. 또한 약을 주어 다른 사람이 낙태하도록 한 것도 큰 죄에 해당되어 『아귀보응경』⁵⁶⁾은 낙태의 죄업을 치루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아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⁵⁷⁾

낙태의 과보에 대한 지나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일에는 그 원인에 따른 과보가 뒤따른다는 점에서 낙태와 같은 불행한

52) 앞의 글, Thanissaro Bhikkhu, “Buddhist Monastic Code I: Chapter 4”.

53) 앞의 책, 대림스님 옮김, 『갈래 멸진의 긴 경』(M38), 『맛지마 니까야』 제2권, 229-230쪽.

54)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X01 No. 17.

55)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X01, p. 394 b14-15.

56) 『餓鬼報應經』, T17 No. 746.

57) 불교 도입 전에는 중국에 내생의 개념은 없었으며 막연히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생각이 있었을 뿐이고 지옥에 대한 묘사가 나타난 것은 불교경전에서 비롯됐다. Xing Guang, “Buddhist Influence on Chinese Religions and Popular Beliefs”,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 vol. 18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Buddhist Thought & Culture, 2012), p. 148.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굳이 종교적인 엄격한 잣대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낙태는 개인과 사회를 불행에 빠뜨리는 일로서 우리사회가 꼭 해결해야 할 일이다.

2. 불전을 통해 본 성 교육

불교에서의 성 교육에 대한 고찰을 시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불사음의 계율의 목적이 괴로움을 없애는 데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 즉 삶에서의 좌절, 불만족 등은 욕망과 갈애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과 갈애를 나 스스로가 잘 조절하게 되면 괴로움도 덜 겪게 된다. 불사음의 계율은 바로 나의 성적인 욕망을 잘 조절하여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불사음을 비롯한 불교의 모든 계율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을 못 지켰다고 해서 붓다가 벌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다니는 절에서 못 오게 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오로지 나 자신이다. 지키는 것이 나에게 좋다고 생각하면 지키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지키면 된다. 좋다고 생각되지만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⁵⁸⁾

성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공포심에 의한 억압이라고 할 수 있다.⁵⁹⁾ 지옥이라든가 에이즈 등의 성병에 대한 공포 때문에 성에 대한 욕구를 억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불설대승조상공덕경』은⁶⁰⁾ 일체의 인간 가운데 가장 하천한 것으로 양성구유자(兩性具有者)를 들면서 다음과 같은 불사음을 행하면 양성구유자로 태어난다고 설하고 있다. 공경 받아야 할 곳을 더럽게 한 것, 남자 몸의 비처(非處)에다 음행을 하는 것, 자기에게 음욕을 행하는 것, 여색을 꺾어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이다. 또한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남을 혐의하거나 희롱하거나 비방하는 것, 여인의 의복으로 장식하기를 즐겨하는 것, 친척 되는 여자에게 음란하고 더러운 짓을 하는 것, 실제는 수승한 덕이 없으면서 허망하게 그 예(禮)를 받는 것 등이다.

이런 식으로 억압하는 것은 표피적인 효과를 가지기는 하나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도움이 안 될뿐더러 사회적인 편견을 만들어낼 수 있다. 성 소수자들의 권익에 대한 의식이 날로 증장되고 보호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 일찍이 이러한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깊이 스스로를 꾸짖고 이미 지은 것을 뉘우쳐서 청정한 신심을 일으키고,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면 성불할 때까지 이러한 몸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구절에 있어서는 아마도 불사(佛事)를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진 위경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가능

58) Walshe, M. O'C., *Buddhism and Sex*, Wheel Publication No. 225, Buddhist Publication Society, 1986, Access to Insight, 1 December 2012, <http://www.accesstosight.org/lib/authors/walshe/wheel225.html>.

59) 같은 글.

60) 『佛說大乘造像功德經』, T16, No. 694.

하게 한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억압해서 불사움을 막는 것은 그릇되게 행한 성교가 가져올 불행한 결과를 막는다는 점에서 하나의 방편이 된다. 여성주의 시각의 한쪽에서는 산모의 자율권 및 생존권을 존중해서 태아의 생존권을 여성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으로써 산모의 생존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선업은 선과를 가져오고 악업은 악과를 가져오는 업의 원리에 따르면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 그러나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성적 과거에 대해서 지나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심리적 불안만 크게 할 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른 방법은 사회의 규범이라든가 자신의 명예와 체면 등을 생각해서 불사움에 대한 뚜렷한 소신은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강행 할 자신도 없으므로 적당히 성에 대한 욕구를 억압하는 것이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사회의 규범과 자신의 욕망 사이의 균형을 잡으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이것도 나쁜지 않은 방법이지만 가장 좋은 것은 성에 대한 욕망의 성질과 그 결과를 잘 알아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욕망을 자제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초기불전에서 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욕망이 잘 다스려지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있다. 어떤 한 비구니가 아난다를 사모해서 병을 핑계대어 아난다가 문병 오도록 했을 때 아난다는 그녀의 불순한 의도를 알고 몸의 속성에 대한 가르침을 줌으로써 그녀 스스로 자신의 과오를 깨닫도록 한 것이다.

“누이여, 이 몸이란 것은 음식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의지하여 음식을 버려야 합니다. 누이여, 이 몸이란 갈애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애를 의지하여 갈애를 버려야 합니다. 누이여, 이 몸이란 자만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만을 의지하여 자만을 버려야 합니다. 누이여, 이 몸은 성행위로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성행위에 대해서는 세존께서는 다리(橋)를 부수어 버리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⁶¹⁾

위의 설법에서 아난다존자는 욕망에 시달리는 이 몸을 있게 한 것들을 열거하는데 그것들은 음식, 갈애, 아만, 성관계의 네 가지이다. 이 몸은 비록 이것들을 매개로 해서 존재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버려져야 할 것들이다.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바로 그것들 자체를 통해서 버릴 수 있다. 우리 몸은 음식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음식을 먹은 건강한 몸을 통해 음식에 대한 집착을 끊을 수 있다. 싯닷타가 고행을 하는 동안에 깨달음은 성취되지 않았고 고행을 끝내고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비로소 건강한 몸을 바탕으로 깨달음이 성취되어 붓다가 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삶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이 몸

61) 앞의 책, 대림스님 옮김, 『비구니 경』 (Bhikkhunī-sutta) (AN 4.159), 『앙굿따라 니까야』 제2권, 342-343쪽.

을 받아 윤희의 삶을 살게 됐지만 윤희를 끊어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는 또 다른 욕망을 통해서 윤희를 벗어날 수 있다. 세 번째로 내가 있다는 아만에 의해서 삶이 영위되지만 진리를 꿰뚫어 알겠다는 자의식을 통해 무아의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몸을 있게 한 성관계에 있어서 출가자는 성관계를 맺도록 하는 어떤 빌미도 용납하지 말고 단절해야 한다.

아난다존자의 설법을 들은 비구니는 아난다존자에 대해 음심을 품었던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은 것이었음을 깨닫고 계를 범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여기서 일어난 상황은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서 욕망으로부터 생겨 욕망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 몸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도록 함으로써 욕망을 벗어나게 한 것이다. 성에 대한 종교교육의 출발점도 역시 성에 대한 욕구의 정체성을 밝혀내서 그것의 실체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야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의식적인 실천이 가능할 것이다.

VI. 결 론

이제까지 성에 관한 불교의 관점을 논하는 데에 있어서 불교경전에 나타난 성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성 문제와 관련하여 고찰해 보았다. 성에 관한 가르침이 초기불전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성에 대한 욕망을 감각에 대한 욕망으로 개념을 확장해서 생각해 보았다. 그에 따라 여러 경전들을 통해 감각에 대한 욕구를 극복하거나 또는 절제해야 하는 이유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앎은 불교교육에 있어서 기본이 돼야 할 것으로 이와 같은 가르침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림으로써 성에 대한 자발적인 절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승불교에 있어서는 보살행의 실천을 중심으로 해서 성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는데 성에 대한 자세한 금기와 죄업은 초기불전의 율장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초기불전의 율장이 비록 출가자를 대상으로 완전한 금욕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일어난 사건에 따라 새로운 계율이 그때마다 제정됨에 따라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금지사항들이 자세히 열거돼 있다. 거기 나타난 여러 가지 사된 음행이 대승경전에서는 재가자들의 불사음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죄과에 대한 서술에 있어서는 삼악도에서 받는 고통에 대한 지나친 묘사를 통해 공포심을 조장하여 부도덕한 성을 규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 또한 오늘날 볼 수 있는 대부분의 형태의 성 관계가 불사음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시대착오적인 면도 있고 또 성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우려도 있어서 오늘날의 성교육에 적용시키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의 성에 대한 가르침은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가자의 행복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섹스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만이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섹스가 유일한 중요한 요소라면 가족제도는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⁶²⁾ 가족 간의 사랑과 희생이 행복한 재가자의 삶에 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출가자의 깨달음을 향한 구도에 있어서 4성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재가자의 결혼생활에 있어서도 욕망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욕망의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복한 삶을 이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의 성 교육을 시작함에 있어서 성에 대한 욕망의 실체를 알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62) Lily de Silva, "One Foot in the World: Buddhist Approaches to Present-day Problems", Access to Insight, 5 June 2010, <http://www.accesstoinight.org/lib/authors/desilva/wheel337.html> .

참고문헌

- 『國王不梨先泥十夢經』, T2.
 『大智度論』, T25.
 『大般若波羅蜜多經』, T07.
 『摩訶僧祇比丘尼戒本』, T22.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 第十卷下, T24.
 『佛說大乘造像功德經』, T16.
 『佛說优婆塞五戒相經』, T24.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卍新纂續藏經〉第一冊 X01 No. 17.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X01, p394b14-15.
 『佛說大乘造像功德經』, T16, No. 694.
 『餓鬼報應經』, T17 No. 746.
 『四十二章經』, T17.
 『成實論』, T32.
 『十不善業道經』, T17.
 『優婆塞戒經』(优婆塞戒經) T24.
 『瑜伽師地論』, T30.
 『雜阿含經』, T02, p287a12.
 『正法念處經』, T17.
- 각목스님 옮김, 『디가 니까야』, 3권, 서울, 초기불전연구원, 2006.
 _____, 『상윳따 니까야』, 6권, 서울, 초기불전연구원, 2009.
 김성철, 「재가불자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시론」, 『제42회 춘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 한국불교학회, 2005.
 대림스님 옮김, 『맛지마 니까야』, 4권, 서울, 초기불전연구원, 2012.
 _____, 『앙굿따라 니까야』, 6권, 서울, 초기불전연구원, 2006-2007.
 마성, 「상좌부 상가와 팔리울장」, 『계율수행 대법회』, 2005. <http://blog.daum.net/riplmaseong> .
 _____, 「울장은 금서인가」, 『불교평론』 제25호, 만해사상 실천선양회, 2005.
 「邪淫」, based on the Buddha's teachings in the Mahayana Sutras & Treatises, 新《佛言》
 网站 www.xinfoyan.com .
 안옥선, 「붓다의 감각에 대한 성찰과 행복실현의 방법」, 『대동철학』 제6집, 대동철학회, 1999.
 _____, 「불교덕윤리에서 부정적 성향의 제거」, 『불교학연구』 제26호, 불교학연구회, 2010.
 야오밍차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대승의 윤리적 담론: 『대반야바라밀다경』(大般若波羅蜜多經) 십이분(十二分)으로 본 철학적 고찰」, 이상민 옮김, 『불교평론』 제32호, 만해사상 실천선양회, 2007.
 조준호, 「불교는 성적 욕망을 어떻게 말하는가」, 『불교평론』 제49호, 만해사상 실천선양회, 2005.
 철우, 「울장을 통해 보는 ‘욕망끊기」, 『불교평론』 제24호, 만해사상 실천선양회, 2005;

-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성에 대한 문제 해결하기」, 블로그 『깨달음에도 공식이 있다』,
<http://blog.daum.net/parkkug/25>.
- Silva, Lily de, “One Foot in the World: Buddhist Approaches to Present-day Problems”, Access to Insight, 5 June 2010, <http://www.accesstoinsight.org/lib/authors/desilva/wheel337.html> .
- Bhikkhu Ariyesako (compiled and explained by), “The Bhikkhus’ Rules: A Guide for Laypeople”, Access to Insight, 1 December 2012, <http://www.accesstoinsight.org/lib/authors/ariyesako/layguide.html> .
- Guang, Xing, “Buddhist Influence on Chinese Religions and Popular Beliefs” ,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 vol. 18,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Buddhist Thought & Culture, 2012.
- Huai Bao, “Buddhism: Rethinking Sexual Misconduct”, Journal of Community Positive Practices, Issue 2, Catalactica NGO, 2012.
- K. Sri Dhammananda, “A Happy Married Life: A Buddhist Perspective”, Access to Insight, 5 June 2010, <http://www.accesstoinsight.org/lib/authors/dhammananda/marriage.html> .
- “Methuna Sutta: The Discourse on Coupling” (A 7.47), Living Word of the Buddha, SD vol 21 no 9, <http://dharmafarer.googlepages.com> or <http://www.dharmafarer.net>.
- Olendzki, Andrew (tr.), “Pañcasata Patacara: The Soothing of Grief” (Thig 6.1), Access to Insight, 8 August 2010, <http://www.accesstoinsight.org/tipitaka/kn/thig/thig.06.01.olen.html> .
- Thanissaro Bhikkhu (translated and explained by), “The Buddhist Monastic Code I: The Patimokkha Training Rules. Access to Insight, 23 April 2012, <http://www.accesstoinsight.org/lib/authors/thanissaro/bmc1/bmc1.intro.html> .
- _____, “Buddhist Monastic Code I: Chapter 4”, Access to Insight, 1 December 2012, <http://www.accesstoinsight.org/lib/authors/thanissaro/bmc1/bmc1.ch04.html> .
- Walshe, M. O’C., Buddhism and Sex, Wheel Publication No. 225, Buddhist Publication Society, 1986; Access to Insight, 1 December 2012, <http://www.accesstoinsight.org/lib/authors/walshe/wheel225.html> .

원고접수일: 2013년 6월 8일 심사일: 6월 19일 게재확정일: 7월 5일

연구자소개: 한성자

① 전공: 불교학 / 소속: 동국대학교

② 관심영역: 인도초기불교, 중국초기대승, 원효

③ 주요논저: 「초기불교의 緣起法과 『中論』의 因果論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한국불교학』 제62호, 한국불교학회, 2012.02. “The Meaning of Emptiness for the Enlightened Ones”,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and Culture*, vol. 14,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Buddhist Thought and Culture, 2012.02. 「사마타와 위빳사나의 不可分性에 대한 고찰」, 『한국불교학』 제65호, 한국불교학회, 2013.02. “Mind-deliverance and Wisdom-deliveranc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Ijangui by Wonhyo”,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and Culture*, vol. 20,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Buddhist Thought and Culture, 2013.02.

④ E-mail: resu80@dongguk.edu

Abstract

The Buddhist View on Sexuality and Sexual Education according to the Scriptures

Han, Sungja

Ph.D. of Dongguk University

In this article the Buddhist teachings about sexuality are analyzed in relation to the sexual problems of the present. In Buddhism, sexual or sensual desire is understood as that which should be overcome because too much indulgence in sexual pleasure inevitably results in suffering. This awareness should be a fundamental basis of Buddhist sexual education in order that voluntary self-restraint can be possible. In the Mahāyāna Buddhist scriptures there are some teachings which contradict one another. While the *Prajna Paramita Sutra*, for example, claims that enjoyment of the five kinds of worldly happiness should not be regarded as unwholesome, so long as one keeps to practice to be liberated from the samsaric world, other scriptures describe severe punishments for improper sexual conduct in order to inhibit people from engaging in such misconduct.

The reason why Buddhist teachings discourage sensual pleasure is not to deny people happiness, but because such happiness is fleeting and Buddhist teachings point the way to real happiness. Sexual life is important for a happy marriage, but what is more important in family life is the love and understanding between partners and a proper nurturing relationship between parent and child. Without maintaining a proper perspective regarding sensual desires, voluntary self-restraint is impossible. Therefore the starting point of Buddhist sexual education should be providing an understanding of the true nature of sexual desire.

Key words : sensual desire, sexuality, suffering, five precepts, sexual misconduct, abortion